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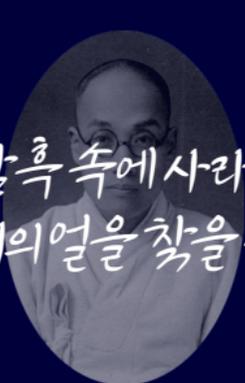
2019 연세사학

동문의 밤



모 · 시 · 는 · 말 · 씬

“얼은 암흑 속에 사라지는가.
이제 어디에서 우리의 얼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일제와 싸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는 국학의 본산이었습니다.

연세사학이 창립된 지도 73년, 졸업생도 2천 명이 넘습니다.

사학과를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때 캠퍼스가 그림고,

그 때 동문수학한 선후배들이 그림습니다.

그리하여 연말을 맞아 조출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두 오셔서 학창시절의 푸른 꿈, 현재의 뿌연 꿈,

미래의 희망찬 꿈을 나누어 봅시다.

2019. 11. 29.

연세사학 총동문회장

이상태 올림

일시 2019. 12. 4. (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연세대 백양누리 [지하 1층] 그랜드 볼룸

회비 졸업 동문 50,000원

학부·대학원 재학생 20,000원

안 · 내 · 말 · 씬

- 1 총동문회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동문 선후배들을 만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사학과 재학생들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2 즐거운 모임을 위해 경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경품을 제공하실 분들이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3 모임 당일 (12월 4일) 저녁 6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하며, 본 행사는 7시부터 시작합니다.
- 4 현재 우리 학교 박물관에서故 마광수 선생님이 남기신 그림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래 저녁 5시에 문을 닫는데, 모임 당일에는 우리 동문 여러분을 위해 6시 30분까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